농림축산식품부 동정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27.(금) 13:00 배포 2026. 11. 27.(금) 06:00

농식품부 장관, 청년 농업인 협업경영 현장 찾아 경영모델 다양화 방안 논의

- 청년들이 함께 힘을 모아 창업한 보령 스마트팜에서 청년농과 간담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1월 27일(금) 오전, 충남 보령시 소재 스마트팜 농업회사법인 '그린몬스터즈'를 방문하여, 함께 경영 중인 청년농 13명과 경영모델 다양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린몬스터즈는 농식품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1기 수료생 3명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으로, 2021년부터 유리온실에서 미니오이를 재배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청년농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초기 투자와 판로 개척 부담을 여럿이서 나누는 협업경영의 현장을 살펴보고자 마련되었다.

행사에 참여한 청년농들은 주로 소규모로 운영됨에 따라 나타나는 스마트팜 영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여 생산, 육묘, 유통, R&D 등을 개인의 역량에 따라 역할 분담하는 공동 영농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총 13명이 참여하여 영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먼저 서원상 대표의 설명을 들으며, 데이터에 기반해 생육환경을 제어하는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았다. 서 대표는 재배 및 시설 관리, 유통 등 역할을 나눈 협업 운영 방식을 소개하며, "혼자서는 엄두를 내기 어려웠지만, 각자 잘하는 일을 맡아 힘을 모으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며, "향후 육묘부터 유통까지 완전 수직계열화 체계를 구축하고 '30년까지 매출액을 대폭 높여 코스닥 상장까지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청년농들은 5년간 함께 농장을 일구며 겪은 시행착오 사례를 이야기하며, 협업경영을 위해 필요한 정책 지원을 건의하였다.

송 장관은 "청년농이 서로의 강점을 모아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협업경영 모델의 정착을 뒷받침하겠다"라며, "오늘 들은 의견은 즉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충실히 검토하여 정책에 순차적으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농업정책관 청년농육성정책팀	책임자	팀 장	박혜민 (044-201-1531)
		담당자	사무관	이가인 (044-201-153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